

## 칠곡 도서관을 다녀와서

(2004. 10. 8. 경북칠곡도서관)



김정희\*

경북 칠곡 도서관에 다녀온 김정희입니다.

칠곡은 처음 가는 길이어서 멀고 낯설기는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북은 제가 자랐던 곳이고 제 문학의 토양이 된 곳이기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 분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은 터라 강연이 끝난 뒤에 그 지방의 역사가 배어 있는 곳을 안내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실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책읽기 운동과 더불어 도서관을 통한 책 문화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물질의 풍요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올바른 정신이나 가치관 등을 무시하는 풍토가 널리 퍼져있는 이때에 책읽기 문화 행사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책은 물질이나 힘의 논리보다도 정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고, 또 나를 발전시키고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오락 등 가벼움과 감각적인 것에 열광하는 이 시대에 책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는 행사여서 책읽기 운동으로 기꺼이 참가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행사여서 그런지 도서관 측에서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 장소가 도서관이 아닌 복지회관 강의실을 빌려서 치러졌는데, 제가 도착하고 난 뒤에야 복지회관에서 때마침 수강을 마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약간 분주했습니다.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문화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칠곡 도서관에서 마련된 강좌나 복지회관에서 마련된 강좌를 수강하시거나 독서회 회원들이었으니까요.

강연 내용으로 도서관의 역할, 특히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교감을 할 것인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책뿐이 아닌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 작가, jhkimv@hanmail.net, 「국화」, 「아사골 미륵이」, 「겉쟁이 하늘이」, 「내 친구 아야」, 「미루나무는 내 마음 알지」, 「지옥에 떨어진 두 악당」 등

라크 전쟁을 통해서 평화 교육을 시키는 것도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쓴 '아시골 미륵이' 를 소재로 삼아 우리나라가 왜 분단국이 되었는지,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강연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의 희생물로서 치러진 전쟁으로 동족끼리 총을 쏘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내용과 요즘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의 제국주의 논리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어떤 분의 강한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단부터 지금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강연 들으러 오신 분들과 서로 토론도 하고 자기 생각도 털어놓고 자연스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의 경직된 분위기가 차츰 부드러워지면서 서로 대화가 오가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책읽기 운동은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책 읽는 시민'의 독자층을 넓혀가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나 경제의 특권이 서울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빚어지는 이때에 지방 문화 활성화에도 큰 몫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비단 책뿐이 아니라, 문화 행사로 전시회를 갖는다든지 음악회,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친해지면서 문화 혜택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반딧불 하나도 큰 희망이 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관계로 강연자뿐이 아니라 행사를 치르는 쪽에서도 서로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 가면서 부족한 점은 차츰 보완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첫 단계에 발을 내디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책읽기 운동이 5년 10년 계속 지속된다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겠지요. 